

미·EU FTA의 전망과 영향

김영귀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ygkim@kiep.go.kr, Tel: 3460-1188)

강유덕 국제경제실 유럽팀 (ydkang@kiep.go.kr, Tel: 3460-1123)

이경아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kalee@kiep.go.kr, Tel: 3460-1083)

차 례 ●●●

1. 추진 배경 및 전개과정
2. 미·EU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전망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미국과 EU 간의 포괄적 FTA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급진 전되어 협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
 -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화정책 사용의 입지마저 매우 좁아지자 대외무역과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산업계의 FTA 요구를 양측의 정계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함.
 -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와 유럽 재정위기, 신흥국의 부상 등에 직면하여 양측은 안정적인 대서양 관계 구축, 글로벌 무역체계의 재설계 등과 같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방법으로 미·EU FTA를 선택함.
- ▶ 미국과 EU 간 관세철폐로 인해 한국의 對EU 수출은 누적적으로 약 2.17억 달러, 對미 수출은 약 1.6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관세 장벽완화나 규제 조화 및 호환성 개선 등으로 인해서는 부정적인 무역전환효과와 함께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기대됨.
 - 미·EU FTA로 양국간 관세가 철폐될 경우, 승용차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의 對EU 수출은 약 2.17억 달러, 對미 수출은 약 1.6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02~0.05%, 후생수준은 약 431~5.19억 달러 줄어들 전망임.
 - 양국간 비관세 장벽 감축 및 규범 개선 등은 관세철폐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그간 미국과 EU 간 상이한 제도에 따른 기업들의 규제준용비용 감소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 기존의 FTA 선례를 감안할 때 타결과 발효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조속한 타결이 가능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상품관세 철폐와 제조업 분야 규제완화를 우선 협상할 가능성이 높음.
 - 전면적 협상보다는 분야별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비관세 장벽 철폐 및 규제 조율 부문에서 산업계의 요구를 수렴하는 분야별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 1단계에서 시장접근 분야를 타결하고, 2단계에서 기술표준을 중심으로 포괄적 협정을 추진하는 중층구조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 글로벌 무역질서와 각국의 FTA 정책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는바, 기체결 FTA 운영을 비롯하여 향후 FTA 추진계획에 미칠 변수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미·EU FTA가 발효될 경우 글로벌 통상규범 및 규제이슈에서 미국과 EU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체결 FTA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향후 FTA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한·미/한·EU FTA의 정합성 문제, 미래최혜국 대우 규정 활용 등에 대한 검토와 이 두 FTA의 통합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 추진 배경 및 전개과정

■ 양측의 적극적인 FTA 추진 속에서도 그간 미·EU FTA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미·EU FTA의 가능성은 1990년대부터 비공식적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나, 낮은 관세구조로 인해 예상되는 수출증가효과가 작아 양측은 주로 신흥국과의 FTA를 추진해 왔음.
- 미국과 EU의 제조업 평균관세는 각각 2.0%와 2.4%에 불과하고 상호간의 시장접근성이 높아 FTA를 통한 추가적인 개방효과는 신흥국과의 FTA에 비해 낮음.
- 2000년대 이후 미국은 중남미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FTA에 역점을 두었으며, EU는 2006년 이후 역외 신흥국과의 FTA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음.¹⁾
- 양측은 선진국과의 통상관계에서는 비관세 장벽철폐, 규제협력,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포괄적 FTA보다는 산업별 접근방식을 선택함.
- [표 1]에 요약된 바와 같이 미국과 EU는 경제계간의 협의체 구성, 산업별 대화를 통해 통상현안에 대한 조율을 추진하였으나 시장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됨.²⁾
- 미·EU MRA(1998), 항공자유화협정(Open skies, 2007), TEC 산하 산업·이슈별 협의체 구성³⁾ 등이 대표적인 협력성과이나 포괄적 협의보다는 지엽적 이슈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왔음.

표 1. 미국과 EU의 통상협력 사례

사례	내용
Transatlantic Business Dialogue(TABD, 1995) → 2013년 1월 Transatlantic Business Dialogue(TBC)로 발전	- 미·EU 산업계 간의 협의채널을 위해 창설(美 Ron Brown 통상장관 제안) - 정부간 접촉 이전에 산업계간 사전협의를 거침으로써 불필요한 통상분쟁을 미연에 방지 - 비관세장벽의 철폐, 규제협력 추진
New Transatlantic Marketplace Agreement(1998)	- ① 미·EU 간 기술장벽 철폐(상호인정 및 규제조율), ② 공산품 관세철폐(2010년까지), ③ 서비스 무역자유화, ④ 정부조달시장, 투자 부문 확대개방 추진(EU 통상장관 Leon Brittan 제안) - EU 회원국 내 반대와 WTO와의 병합성 문제, 농업개방의 난항으로 실현되지 못함.
Transatlantic Economic Council (TEC, 2007)	- 양측의 무역·투자증진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로 출범 ※ Framework for Advancing Transatlantic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European Union - 규제장벽 철폐 및 협력에 초점

자료: 저자 정리.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미·EU 간 포괄적 FTA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함.

1) 2000년대 미국과 EU의 FTA 정책은 상호경쟁적 측면이 존재하며,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전략적, 자원 확보 차원의 동기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음. EU는 1999~2004년 기간 동안 역외국과의 신규 FTA를 추진하지 않는 'FTA 모라토리엄'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06년 이후 적극적 FTA 정책으로 선회하였음.

2) ECIPE(2012), *Prospects for transatlantic FTA, Implication for Japan and the Global Trading System*, p. 3.

3) U.S.-EU IPR Cooperation Working Group(2005), EU-U.S. Innovation Action partnership(2009)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대내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계속된 경기부진으로 미·EU FTA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인 확보 필요성이 증가함.
 -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입지마저 매우 좁아져 대외무역과 투자촉진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였음.
 - 미국과 EU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으나, 역대 최고수준인 국가채무 문제로 인해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어려운 상황이며, 기준금리도 역대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조합(policy-mix)의 여지가 매우 작음.
 - 부채축소(deleveraging) 현상과 인구 고령화(특히 EU)를 감안할 때 자체적인 성장동력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어, 무역·투자 촉진을 통해 대외수요 확충을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해짐.
- 그동안 주로 산업계가 양측의 FTA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양측의 정계도 점차 높은 관심을 표출하면서 FTA 추진을 위한 정치적 여건이 형성됨.
 - 오바마 대통령과 바로소 EU 집행위원장, 독·불·영 정상은 미·EU FTA를 매우 지지하는 입장이며, 美상공회 의소, Business Europe(유럽전경련) 등의 산업단체도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

글상자 1. 미·EU FTA의 경제적 효과

- 미·EU 간 전면적 관세철폐(ECIPE 2010): 2~3.5%의 생산성 향상 고려
 - EU의 대미 수출은 7~18% 증가하고 EU의 GDP가 0.32~0.47%(465억~69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2010~15년)
 - 미국의 대EU 수출은 8~17% 증가하고 GDP는 0.99~1.33%(1,352억~1,81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제3국에 미치는 GDP 감소효과는 미미
- 미·EU 간 비관세장벽 전면 철폐(ECORYS 2009)
 - EU와 미국의 실질소득이 연평균 각각 0.27~0.72%, 0.13~0.28% 증가할 것으로 예상(2008~2018년)
 - 비관세장벽 철폐로 인한 수출증가효과는 전자전자, 자동차, 식품, 제지, 보험 등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미·EU FTA(European Commission 2013)
 - EU와 미국의 GDP가 2027년까지 각각 연평균 0.5%, 0.4% 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대외 배경) 정치적 맥락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대서양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함.
 - 재정위기와 내부갈등으로 인해 EU/유로존이 해체 또는 장기침체에 빠질 경우 이는 미국의 국제적 입지도 약화시킬 것이 자명함.
 - 신흥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경제적으로 튼튼한 유럽의 유지와 안정적인 대서양관계 구축이 필요
 - ※ 일부 언론에서는 미·EU FTA 추진계획을 'Economic NATO'로 지칭(*The Washington Post* 2012.12.5)
 - 양측은 이 FTA가 글로벌 무역체계를 미·EU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함.
 - 서비스교역, 규범,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시장 등을 포함하는 미·EU 간의 수준높은 FTA가 추진될 경우, 양측은 협상 결과물을 글로벌 어젠다로 추진함으로써 다자체계에서도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음.

표 2. 미·EU FTA 전개과정

일시	내용
2011년 11월 28일	미국-EU 정상회의 • 양측 정상은 양측의 통상장관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작업반(High Level Working Group for Jobs and Growth)을 구성하도록 지시
2012년 2월 22일	미 상원은 미·EU FTA 추진에 대한 찬성의사를 표명
6월 19일	고위급 작업반 중간보고서 발표(2012.6.19) • 미국·EU 간의 포괄적 무역투자협정(이하 미·EU FTA로 지칭)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동 무역협정은 관세, 규제 및 비관세장벽,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재권을 포함할 것을 권고 • 미국과 EU가 각각 체결한 제3국과의 FTA를 조율하고 다자통상체계에 기여할 수 있는 통상규범을 제시할 것을 제안
10월 23일	유럽의회(2012.10.23)는 미·EU FTA 추진에 대한 찬성의사를 표명 • 유럽의회는 2013년 상반기부터 FTA 협상을 추진하도록 EU 집행위원회에 협상 위임권을 승인
2013년 2월 8일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미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합의
2월 11일	고위급 작업반 최종보고서 발표(2013.2.11) • 미·EU FTA(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의 3대 분야로 시장접근(분야 ①), 규제이슈 및 비관세장벽(분야 ②), 국제통상 규율 및 차세대 협력(분야 ③)을 제시 • 분야 ①은 통상적인 FTA와 유사하나, 분야 ②에 초점을 두고 일반적인 FTA보다 수준높은 SPS plus와 TBT plus를 포함할 것임을 강조 • 분야 ③은 미·EU FTA에서 합의된 내용을 글로벌화하여 제3국과의 FTA를 조율하는 한편, 다자무역체제의 정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포함
2월 12일	오바마 미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EU와의 FTA 협상출범을 공식화
2월 13일	EU 집행위원장,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미대통령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FTA 협상시작을 공식화

자료: 주요 언론 및 관계국 정부기관 발표를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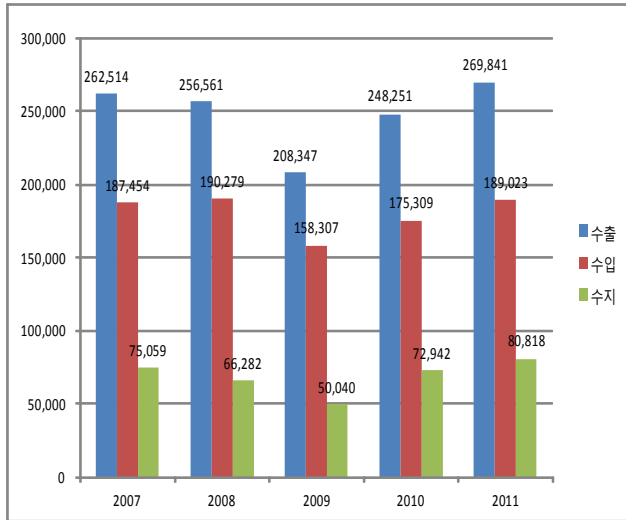
2. 미·EU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미국과 EU 간의 교역 및 투자관계

- EU의 對미 상품교역은 지속적인 흑자구조인 반면, 서비스교역에서는 비교적 무역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임.
- 2007~11년간 EU의 對미 상품교역은 매년 500~800억 유로의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서비스교역에서는 최근 5년간 흑자와 적자를 모두 기록함.
- 2007년 약 83억 유로의 서비스교역 흑자폭은 점차 감소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과 2010년 53억 유로, 3억 유로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가 2011년 다시 약 54억 유로의 흑자로 전환

그림 1. EU의 對미 상품교역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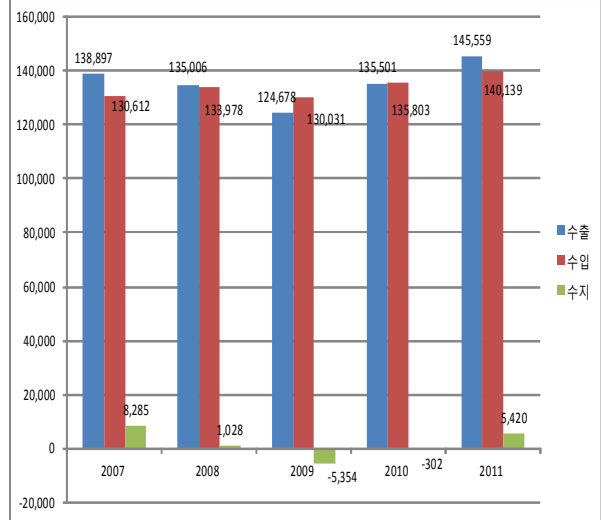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자료: 유럽 통계청(Eurostat).

그림 2. EU의 對미 서비스교역추이

(단위: 백만 유로)



자료: 유럽 통계청(Eurostat).

■ 2011년 기준 미국은 EU의 제1위 수출, 제3위 수입상대국으로 각각 2,637억 유로, 1,909억 유로의 수출입을 기록함.

- EU의 전체수출에서 對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로 가장 높으며, 수입비중은 11.1%로 중국(17.1%), 러시아(11.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 2011년 현재 한국은 EU의 10위 수입상대국으로 EU 전체수입의 2.1%(약 360억 유로)를 차지함.

표 3. EU의 주요 교역상대국(2011년)

(단위: 백만 유로, %)

주요 수출상대국				주요 수입상대국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1	미국	263,638.5	16.9	1	중국	293,281.3	17.1
2	스위스	139,510.3	9.0	2	러시아	199,092.9	11.6
3	중국	136,343.0	8.7	3	미국	190,911.0	11.1
4	러시아	108,313.4	7.0	4	노르웨이	93,766.5	5.5
5	터키	72,977.2	4.7	5	스위스	91,837.6	5.3
6	일본	49,004.9	3.1	6	일본	69,145.3	4.0
7	노르웨이	46,661.6	3.0	7	터키	48,059.7	2.8
8	인도	40,545.8	2.6	8	인도	39,587.9	2.3
9	브라질	35,739.9	2.3	9	브라질	38,909.4	2.3
10	아랍에미리트	33,300.8	2.1	10	한국	36,107.6	2.1

자료: EUROPEAN COMMISSION(<http://ec.europa.eu/>)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 EU는 미국의 제2위 수출입 상대국으로 2011년 미국의 對EU 수출은 2,034억 유로, 수입은 약 2,835억 유로임.
- 미국의 총 수출에서 對EU 수출은 18.5%를 차지하여 캐나다(19.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對EU 수입비중은 16.9%로 중국(18.8%)에 이어 두 번째임.
- 한국은 미국의 제6위 수출입 상대국으로 2011년 미국 전체 수출의 3%와 수입의 2.6%를 차지함.

표 4.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2011년)

(단위: 백만 유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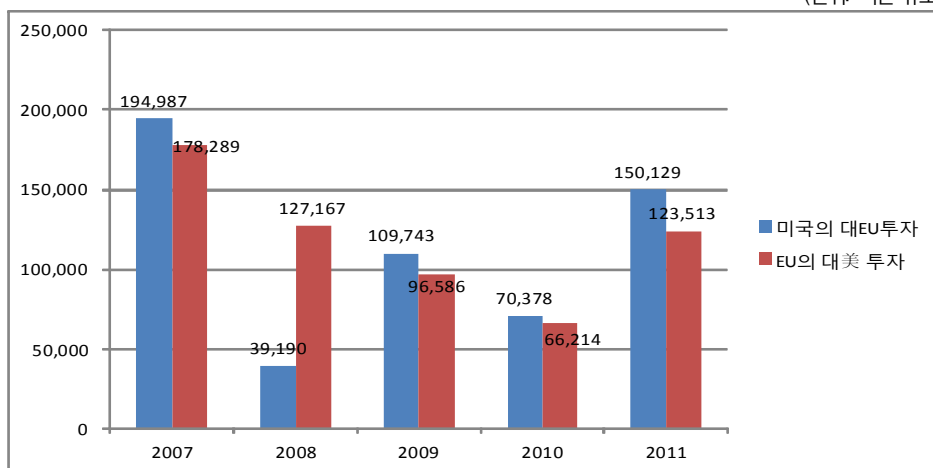
주요 수출상대국				주요 수입상대국			
순위	국가	수출액	비중	순위	국가	수입액	비중
1	캐나다	211,785.5	19.3	1	중국	314,817.8	18.8
2	EU27	203,398.4	18.5	2	EU27	283,533.4	16.9
3	멕시코	149,011.1	13.6	3	캐나다	241,904.7	14.4
4	중국	78,357.8	7.1	4	멕시코	200,190.8	11.9
5	일본	49,912.0	4.5	5	일본	99,903.4	6.0
6	한국	32,816.6	3.0	6	한국	44,188.4	2.6
7	브라질	32,393.1	3.0	7	사우디아라비아	36,780.5	2.2
8	홍콩	27,542.1	2.5	8	베네수엘라	33,086.5	2.0
9	싱가포르	23,680.3	2.2	9	인도	28,262.9	1.7
10	호주	20,756.0	1.9	10	러시아	26,786.9	1.6

자료: EUROPEAN COMMISSION(<http://ec.europa.eu/>) 자료를 토대로 저자 정리.

- 미국과 EU의 직접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對EU 직접투자 규모가 EU의 對미 직접투자 규모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EU의 對미 직접투자는 2007~10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 큰 폭으로 증가함.

그림 3. 미국과 EU의 직접투자 추이(Flow)

(단위: 백만 유로)



자료: 유럽 통계청(Eurostat).

- 미국과 EU의 주요 수출품목을 비교한 결과, 상위 10개 품목 중 6개의 품목이 겹쳐 산업내 무역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SITC 3단위 기준으로 양국의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6개(334, 542, 541, 781, 874, 515) 부문이 서로 겹치며, 이들의 비중은 미국의 경우 약 24%, EU의 약 32%임.
- 미국의 對EU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유와 역청유 및 이들의 조제품(334)이고, 그 다음으로 의약품류(542,541)가 높은 비중을 나타냄.
- EU의 對미 수출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의약품(542)이며, 그 다음으로 승용차(781), 석유와 역청유 및 이들의 조제품(33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5. 미국과 EU의 수출 교역 상황(2011년)

미국의 對EU 10개 수출품목				EU의 對미 10개 수출품목			
순위	SITC3단위	품목명	비중	순위	SITC3단위	품목명	비중
1	334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 및 이들의 조제품	6.68	1	542	의약품(수의약품 포함)	7.83
2	542	의약품(수의약품 포함)	4.69	2	781	승용차 및 기타의 차량	7.57
3	541	의약품 및 약제제품(542항 의약품 제외)	4.26	3	334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 및 이들의 조제품	6.16
4	781	승용차 및 기타의 차량	3.83	4	515	유기-무기화합물, 헥테르고리 화합물, 핵산	4.79
5	971	금(금광 및 그정광제외) ; 화폐용이 아닌것	3.83	5	714	기관 및 모터 비전기식:달리 명시되지 않은 기관	3.57
5	872	기타 의료용, 외과용, 치과용이나 수의용의 기기	2.66	5	541	의약품 및 약제제품(542항 의약품 제외)	3.42
7	874	기타 측정, 검사, 분석 통제기구 및 장치	2.59	7	792	항공기 및 관련장비 우주선	2.75
8	321	석탄	2.56	8	874	기타 측정, 검사, 분석 통제기구 및 장치	2.45
9	515	유기-무기화합물, 헥테르고리 화합물, 핵산	2.06	9	112	알콜성 음료	2.38
10	752	자동차료처리기계	1.96	10	784	722,781,782 및 783항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	2.23
상위 10개 품목 비중			35.12	상위 10개 품목 비중			43.15

주: SITC 3단위 중 931(Special transactions and commodities not classified according to kind)은 순위에서 제외함.
 자료: WITS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나. 미국과 EU 시장에서 한·EU, 한·미 간 경쟁구조

- EU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수출 경쟁관계를 살펴보면, 승용차(781), 석유와 역청유(334)를 중심으로 경합이 예상됨.
- 우리나라의 對EU 주요 수출품목들은 선박(793), 승용차(781), 기타 통신장비(764)임.
- EU 시장에서 미국과의 경쟁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와 EU의 관세율을 살펴봄.

- RCA는 일국의 수출에서 특정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전 세계 수출에서 해당 품목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크면 그 국가가 해당 품목에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됨.
- 선박(SITC 793)의 경우, 우리나라 RCA 수준이 미국보다 크며 현재 미국이 적용받고 있는 관세율이 낮아 미국과 EU의 FTA 체결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승용차(SITC 781)의 경우 우리나라의 RCA 수준이 미국보다 높지만 한국과 미국의 對EU 수출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현재 미국이 적용받는 높은 관세율이 미국과 EU의 FTA 체결로 철폐되면 EU의 승용차시장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수출경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석유와 역청유(SITC 334)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對EU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RCA 수준이 비슷하여 미국·EU FTA로 인해 EU 시장에서 해당 부문의 수출경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표 6. 한국과 미국의 對EU 주요 수출품목 및 경쟁구조

순위	SITC 3단위	품목명	한국의 대EU 수출비중	관세율	미국의 대EU 수출비중	미국 RCA	한국 RCA
1	793	선박, 보트 및 부유구조물	23.17	0.76	0.18	0.16	9.10
2	781	승용자동차, 기타의 차량	10.12	9.97	3.83	0.87	1.96
3	764	기타 통신장비	7.98	1.25	1.77	0.85	2.02
4	784	722, 781, 782 및 783항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	6.12	3.90	0.85	1.24	1.87
5	871	기타 광학기구 및 장치	5.88	3.59	0.35	0.37	8.18
6	334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 및 이들의 조제품	5.24	2.10	6.68	1.21	1.79
7	776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과	3.14	0.07	1.03	0.93	2.55
8	723	토목공사용 장치	1.62	0.00	0.78	2.06	1.97
9	778	기타 전기기계 및 장치	1.56	2.16	0.79	0.84	1.85
10	625	고무타이어, 호환성타이어 트레드, 타이어플랩 및 인너튜브	1.51	4.26	0.18	0.71	1.48
11	674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43	0.00	0.04	0.40	3.05
12	759	751항 및 752항 기계전용 부분품	1.14	0.03	0.27	1.31	1.19
13	728	특수산업용 기타 기계기구 및 동부분품	1.07	1.02	1.08	1.27	1.35
14	713	기타 내연 피스톤기관 및 동부분품	1.03	2.68	0.97	1.18	1.04
15	752	자동차료처리기계	1.00	0.00	1.96	0.96	0.31
16	574	아세탈수지, 기타 폴리에테르, 에폭시 수지	0.98	6.09	0.28	1.15	2.75
17	675	합금철의 평판압연제품	0.91	0.00	0.24	0.47	1.61
18	884	기타 광학용품	0.90	3.28	0.31	0.83	2.24
19	775	기타 가정용 전기 및 비전기장비	0.77	1.68	0.15	0.40	1.16
20	874	기타 측정, 검사, 분석 통제기구	0.74	1.26	2.59	2.04	0.49
상위 10개 품목 비중			66.33				
상위 20개 품목 비중			76.30				

자료: WITS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와 EU의 수출관계를 비교해보면, 승용차(781), 석유와 역청유(334)를 중심으로 수출 경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對미 주요 수출품목들은 기타 통신장비(764), 승용차(781), 차량의 부분품(784)인 것으로 나타남.
- 기타 통신장비(SITC 764)의 경우 우리나라의 RCA 수준이 EU보다 크며 현재 EU가 적용받고 있는 관세율이 낮아 미국과 EU의 FTA 체결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승용차(SITC 781), 석유와 역청유(SITC 334)의 경우 우리나라와 EU의 RCA 수준이 비슷하고 한국과 EU의 對미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수출품목들로, 미국과 EU의 FTA로 인해 미국의 승용차시장에서 우리나라와 EU의 수출경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표 7. 한국과 EU의 對미 주요 수출품목 및 경쟁구조

순위	SITC 3단위	품목명	한국의 대미 수출비중	관세율	EU의 대미 수출비중	EU RCA	한국 RCA
1	764	기타 통신장비	17.18	0.45	1.46	0.74	2.02
2	781	승용차 및 기타의 차량	15.55	1.25	7.57	1.63	1.96
3	784	722,781,782 및 783항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	8.32	0.82	2.23	1.14	1.87
4	334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 및 이들의 조제품	4.62	6.85	6.16	1.05	1.79
5	679	철강의 튜브, 파이프 및 중공프로파일과 튜브	2.89	0.39	0.74	1.44	1.50
6	625	고무타이어, 호환성타이어 트레드, 타이어플랩 및 인너튜브	2.71	2.95	0.39	0.66	1.48
7	759	751항 및 752항 기계전용 부분품	2.59	0.10	0.28	0.52	1.19
8	775	기타 가정용 전기 및 비전기장비	2.27	1.08	0.26	0.82	1.16
9	776	열전자관, 냉음극관 및 광전과	2.23	0.14	0.78	0.31	2.55
10	511	기타 탄화수소/그 유도체	2.08	0.86	0.27	0.38	3.75
11	724	섬유 및 가죽용 기계류 및 기타 부분품	2.08	1.07	0.20	2.26	2.66
12	728	특수산업용 기타 기계기구 및 동부분품	1.81	0.74	2.17	2.24	1.35
13	778	기타 전기기계 및 장치	1.64	1.16	1.08	0.78	1.85
14	673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1.46	0.00	0.17	0.54	3.72
15	793	선박, 보트 및 부유구조물	1.28	1.21	0.88	0.84	9.10
16	752	자동차료처리기계	1.20	0.00	0.62	0.44	0.31
17	723	토목공사용 장치	1.12	0.00	1.03	1.67	1.97
18	743	액체용 이외의 펌프, 공기 또는 개스입축기 및 선풍기	1.09	0.51	1.07	1.73	0.79
19	792	항공기 및 관련장비 우주선	1.06	0.00	2.75	3.22	0.18
20	713	기타 내연 피스톤기관 및 동부분품	1.05	0.85	1.92	1.44	1.04
상위 10개 품목 비중			60.47				
상위 20개 품목 비중			74.25				

자료: WITS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다. 미·EU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

- 미국과 EU 간 관세 완전 철폐 시 한국의 對EU 수출은 누적적으로 약 2.17억 달러, 對미 수출은 약 1.67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對EU 수출은 승용차(△0.8억 달러), 석유제품(△0.13억 달러), 차량부품(△0.1억 달러), 기타 플라스틱(△0.09억 달러) 순으로 감소
 - 승용차와 석유제품은 한국과 미국의 對EU 수출비중이 높고 비교적 고관세이며, 차량부품의 경우 양국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중임(표 6 참고).
 - 對미 수출은 석유제품(△0.3억 달러), 승용차(△0.3억 달러), 타이어(△0.09억 달러), 차량부품(△0.05억 달러) 순으로 감소
 - 승용차 및 차량부품, 석유제품은 한국과 EU의 경합품목으로 양국의 대미 수출비중도 높은 편(표 7 참고)

표 8. 미·EU FTA로 인한 수출변화

(단위: 억 달러)

시나리오*	對미 수출**	對EU 수출***
농업	△0.03	△0.01
제조업	△1.64	△2.16
계	△1.67	△2.17

주: * 100% 관세철폐 시나리오, 식품은 농업에 포함.

** 對EU 수출: 493.79억 달러(2012년), 557.27억 달러(2011년).

*** 對미 수출: 595.24억 달러(2012년), 562.08억 달러(2011년).

- 미·EU FTA 발효 시 관세철폐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 실질 GDP는 약 0.02~0.05%, 후생수준은 약 4.31~5.19억 달러 감소할 전망이다.⁴⁾
 - 미·EU FTA로 양국간 관세가 철폐되면, 對미, 對EU로의 수출 감소와 중국의 수출 감소로 인한 간접 영향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
 - 다만 양국간 교역증대로 인한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요 증가와 수출 시장의 중장기적 확대로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생산 감소가 예상되나, 산업별로 생산변화는 상이한 것으로 분석됨.

4) 시나리오는 양국간 현행관세율을 90% 철폐하는 경우와 100% 철폐하는 경우를 고려하였고, 한·미 FTA와 한·EU FTA가 발효된 상황에서 미·EU FTA 발효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였음.

- 주로 섬유($\Delta 0.01 \sim \Delta 0.1\%$), 화학($\Delta 0.04 \sim \Delta 0.07\%$), 자동차($\Delta 0.22 \sim \Delta 0.34\%$), 수송기기($\Delta 0.17 \sim \Delta 0.34\%$) 산업에서의 생산 감소가 예상됨.
- 반면 철강($0.02 \sim 0.07\%$), 금속($0.11 \sim 0.15\%$), 전자($0.08 \sim 0.14\%$), 기계($0.1 \sim 0.19\%$) 등 중간재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산업에서는 생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됨.

2) 비관세 장벽 완화 및 규제 개선에 따른 영향

■ 비관세 장벽완화나 규제 조화 및 호환성 개선 등으로 인한 부정적 무역효과와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동시에 기대됨.

- 규제 및 비관세장벽 완화 시 미·EU 간 교역이 촉진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양국간 관세철폐로 인한 영향과 유사하게 다소간 무역전환피해가 예상됨.
 - 미국과 EU 간의 관세장벽의 경우 평균 3~4% 수준인 데 반해, 비관세장벽은 음식·음료, 화장품, 자동차 부문 등에서 25.5~73.3% 수준으로 매우 높음(표 9 참고).
 -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기업들의 사업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접근을 제한하여 미·EU 간 교역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미·EU FTA 체결을 통해 비관세장벽이 전면 철폐될 경우 2008~18년 EU와 미국의 수출은 각각 연평균 약 2%, 6% 상승하고 수입은 각각 연평균 약 2%, 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기업의 무역전환피해가 예상된다.⁵⁾

표 9. 미국과 EU의 비관세장벽

(단위: %)

산업분야	미국의 비관세장벽	EU의 비관세장벽
화학	21.0	23.9
제약	9.5	15.3
화장품	32.4	34.6
전자	6.5	6.5
사무, 통신장비	22.9	19.1
자동차	26.8	25.5
항공	19.1	18.8
음식, 음료	73.3	56.8
금속	17.0	11.9
섬유, 의류	16.7	19.2
목재, 종이제품	7.7	11.3

주: 미국과 EU의 규제차이 및 비관세장벽의 무역비용을 관세상당치(%)로 측정.
자료: ECORYS.

5) ECORYS(2009), "Non-Tariff Measures in EU-US Trade and Investment-An Economic Analysis," p. xix, xx.

- 반면, 미·EU 간 규제 조화 및 호환성 개선은 우리 기업의 규제순응비용을 낮춰 한·미, 한·EU FTA 활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과 EU간 무역에서 규제 차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관세상당치 10~20% 수준으로 양측 교역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과 EU는 화학, 자동차, 의약품 부문 등에서 규제 호환성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적 지연을 줄이고자 함.⁶⁾
- 우리 기업의 對미·對EU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문에 국별로 다르게 적용받고 있는 규제가 조화 및 호환성 개선을 이룰 경우 불필요한 이중비용 감소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가 기대됨.

3. 전망 및 시사점

가. 협상 전망

■ 협상은 금년 6월중 개시되어, 내년 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양측 정계와 산업계가 FTA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사를 천명하고 있고 공동성명을 통해 협상개시를 공식화했으므로 국내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공식출범이 예상됨.
- EU는 이사회(27개 회원국으로 구성)가 EU 집행위에 협상권한을 위임한 상황이므로 미국의 국내절차(의회에 공식 통보 후 90일간의 협의기간)를 마치는 대로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됨.
- 현 EU 집행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는 2014년 10월 전 타결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미 대통령의 잔여임기(2016년 말)내 타결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됨.

■ 내용상으로는 포괄적 협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나, 목표시한을 감안하면 형식상 중층구조(tiered structure)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고위급 작업반 보고서의 권고나 WTO내 양국의 위상을 고려할 때 포괄적 협정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예상됨.
- 작업반 보고서에 따르면, 협정내용은 시장접근,⁷⁾ 규제이슈와 비관세장벽,⁸⁾ 국제통상 규율⁹⁾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전면적 협상보다는 분야별 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비관세 장벽 철폐 및 규제 조율 부문에서 산업계의 요구를 수렴하는 분야별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6) European Commission(2013)(MEMO/13/95), "European Union and United States to Launch Negotiations for a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p. 1, 2

7) 상품, 서비스, 투자, 공공조달

8) 안전환경기준(자동차 등), 표준절차 상호인정(SPS, TBT), 규제 호환성(화학, 자동차, 의약품 등) 등 국경내 장벽(behind-the-border)

9) 지식재산권, 환경과 노동, 기타 이슈(무역원활화, 경쟁, 국영기업 등)

- 목표시한을 고려할 때 1단계에서 시장접근 분야를 타결하고, 2단계에서 기설정의제를 중심으로 포괄적 협정을 추진하는 중층구조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식품 및 화학 관련 규제,¹⁰⁾ 농업보조금 문제 등에서 대립할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FTA 선례를 감안할 때 포괄적 FTA의 일괄타결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타결 후 발효까지도 상당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 선례가 될 수 있는 EU·캐나다 FTA의 경우 2009년 5월 협상시작 이후 현재 4년째 협상이 진행 중임(2013년 상반기 중 타결 예정).
- 따라서 예정한 협상기한 내 조속한 타결이 가능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상품관세 철폐와 제조업 분야 규제완화를 우선 협상할 가능성이 높음.
- 논의에 시간이 필요한 장기 협상과제는 기설정의제 형식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는 살아 있는 협정(living agreement) 형태로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나. 시사점

- 미·EU FTA 내용과 기체결 FTA와의 조율과정에 따라 글로벌 질서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
 - 미·EU FTA에 규제이슈와 글로벌 통상에 관한 규율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그 내용에 따라 글로벌 거버넌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글로벌 규제경쟁을 주도하고 있는 EU와 미국의 규제가 수렴화 또는 상호인정효과를 갖게 됨으로써 미국과 EU의 입지가 한층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음.
 - ※ 세계의 표준과 강제기준은 대부분 유럽에서 탄생했으며 유럽이 주도하고 미국이 뒤따르는 패턴을 보여왔음.¹¹⁾
 - 글로벌 통상 규율의 기준 제시를 통해 복수국간 협정 등을 활성화시킬 가능성과 함께, 주요 신흥개도국을 자극하여 정체되어 있는 WTO DDA 협상 추진동력을 소생시킬 가능성이 상존함.
 - 또한 양측의 많은 기체결 FTA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FTA가 재편되면서 전 세계적 FTA 정책에 파급효과를 줄 전망이다.
 - 미·EU FTA와 양측 기체결 FTA의 조화과정에서 FTA의 표준 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음.
- 미국의 TPP를 통한 환태평양, 미·EU FTA를 통한 현대서양 공약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논의의 활성화와 특히 중국의 적극적 FTA 추진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적극적인 수출확대를 위한 전략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 논의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현재 TPP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EU FTA로 인한 시장접근성 악화와 영향력 감

10) 미국의 규제는 최종생산품에 집중되는 데 반해 EU의 규제는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식품, 화학·화장품 등에서 제도적 차이가 크게 나타남.

11) ISO와 CEN(유럽표준화위원회) 간의 비엔나 협정과 IEC(국제전기표준화위원회)와 CENELEC(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간의 드레스덴 협정은 유럽표준을 그대로 국제화하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ISO와 IEC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유럽이 주도하고 있음.

소에 대한 우려로 활발하게 FTA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2012년 10월 제4차 협상까지 진행된 한·중 FTA 협상과 2013년 2월 준비회의를 가진 한·중·일 FTA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조속한 타결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과 EU 시장 선점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발효 FTA 활용률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함.

- 시장 접근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EU FTA의 조속한 타결은 한·미, 한·EU FTA 효과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장선점 효과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미·EU FTA 발효를 염두에 둔 한·미, 한·EU FTA 활용 전략을 구축해야 함.
- 미국과 EU 간 산업내 무역이 활발한 분야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의 빠른 철폐가 예상되므로, 투자진출 시 한·미, 한·EU FTA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함.

■ 미국과 EU가 각자의 FTA를 서로 조율하는 논의과정에서 한·미, 한·EU FTA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 EU가 한·미/한·EU FTA의 정합성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에 한·미, 한·EU FTA 이행협의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미·EU FTA 시장접근 분야는 양측의 기체결 FTA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미, 한·EU FTA 수준과 비교하여 미래최혜국 대우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도 선행되어야 함.

부록. 미국과 EU의 FTA 추진 현황(2013. 1 기준)

구분	발효	타결	협상 진행	여건 조성
미국	이스라엘(85.8), NAFTA(94.1), 요르단(01.12), 싱가포르(04.1), 칠레(04.1), 호주(05.1), 모로코(06.1), 바레인(06.8), CAFTA-DR(06.3), 오만(09.1), 페루(09.2), 한국(12.3), 콜롬비아(12.3) 파나마 (12.10)		TPP (12.12 15차) ※ SACU, CAN, 에콰도르, 태국, FTAA, UAE, 말레이시아와의 협상 중단	ASEAN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집트 대만 파키스탄 조지아 EU
EU	OCTs(71.1), EFTA(77.1), 안도라(91.7), EEA(94.1), 터키(96.1), 페로제도(97.1), 팔레스타인(97.7), 튀니지(98.3), 남아공(00.1), 모로코(00.3), 이스라엘(00.6), 멕시코(상품 00.7, 서비스 00.10), FYROM(01.6), 크로아티아(02.3), 산마리노(02.4), 요르단(02.5), 칠레 (상품 03.2, 서비스 05.3), 레바논(03.3), 이집트(04.1), 알제리(05.9), 알바니아(06.12), 몬테 네그로(08.1),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08.7), 코트디부아르(09.1), 카메룬(09.10), 파푸아뉴기니나피지 (09.12), 세르비아(10.2), 한국(11.7)	페루·콜롬비아 (12.12), 중미(12.12), 싱가포르(12.12), 우크라이나 (11.12) ※ 시리아 (서명연기)	인도(10.11 11차), 캐나다(11.10 9차), 베트남 (12.6 개시), 말레이시아(11.10 5차), MERCOSUR(11.11 7차), 조지아 아르메이나, 몰도 바 (협상진행) ※ CAN, 에콰도르, 리비아, GCC와의 협상 중단	일본 중국 파키스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아제르바이잔 미국 등 ※ 크로아티아 EU 가입 (7월)

자료: 김혜윤(2012), 「주요국의 FTA 동향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 포커스 12-33호를 토대로 저자 정리.